

C. 윌레 집담회 발표

1. 전이성 비인두 미분화 암종의 세침흡인 : 방추형 세포의 양상을 나타낸 1 예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Metastatic Nasopharyngeal Undifferentiated Carcinoma : Report of a Case Presenting Spindle Cell Pattern

민동원, 이광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저자들은 경부 림프절에 전이된 비인두 미분화 암종으로서 주로 방추형 세포의 양상을 나타낸 경부 림프절의 세침흡인 1 예를 보고하면서 비인두 미분화 암종의 세포학적 소견을 고찰하고자 한다.

전이성 비인두 미분화 암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은 조직학적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즉 핵은 대부분 난원형이며 일부 방추형일 수 있고 투명한 핵질과 호산성의 뚜렷한 핵소체가 특징적 소견이다. 세포질은 비교적 적은 양이며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세포들이 군집을 이룬다. 도말배경에는 종양세포들과 함께 성숙한 림프구가 같이 나타난다.

본 예는 36 세 남자 환자로 9개월전부터 우측 안면부의 감각이상이 있었으며 4개월전부터 경부에 종괴가 만져졌다. 이학적 검사상 이 종괴는 림프절이 커진 것으로 생각하여 세침흡인검사를 하였으며 동시에 두경부의 암종이 경부 림프절에 전이된 것으로 생각하여 검색중 비인두의 종괴를 발견하고 비인두 생검을 하여 비인두 미분화 암종을 진단하였다.

경부 림프절의 세침흡인 도말 소견상 세포들은 주로 방추형이었으며 간혹 난원형의 세포가 있었고 도말배경에는 성숙한 림프구가 적은 수로 섞여 있었고 세포분열도 관찰되었다. 세포들의 핵막은 얇고 핵질이 투명하였으며 간혹 호산성의 핵소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세포질은 적은 양이었으며 세포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일부 세포는 군집을 이루고 있어 방추형 세포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핵과 세포질의 특징은 비인두 암종에서 기술된 세포학적 소견과 일치하는 소견이었다. 그러나 방추형의 세포가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암육종을 먼저 생각할 정도로 감별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방추형의 세포들이 주로 나타난 것은 조직학적으로 비인두 미분화 암종이 부분적으로 분화를 보이면서 방추형 세포들이 좀더 현저해진 때문이라 여겨진다.

본 예의 경험으로 보아 경부 림프절의 세침흡인에서 방추형 종양세포가 나오는 경우 육종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비인두 암종 역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조직학적으로 비인두 미분화 암종에서 방추형의 세포는 간혹 나타나는 소견이지만 림프절의 전이성 병변에서 세침흡인시 방추형의 세포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투명한 핵질, 호산성의 뚜렷한 핵소체, 적은 양의 세포질과 불분명한 세포경계, 세포군집 형성등, 특징적인 비인두 미분화 암종의 세포학적 소견에 익숙해 있다면 비록 방추형 세포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인두 미분화 암종의 진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